

AIIB 발주 亞인프라시장 잡아라… 금융산업, 해외 건설수주 도우미로 변신



원정호
건설경제신문 금융부 기자

한국 건설사와 금융회사에 아시아 인프라시장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인사인트’에 따르면 해외건설·플랜트 시장규모는 2014년 8조5,000억 달러이던 것이 해마다 4%씩 성장, 10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ENR’은 외국기업에 개방된 국제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5,440억달러로 전체의 6.5% 수준이지만 2018년까지 8,0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하면 아시아지역 인프라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건설·플랜트기업의 활발한 해외 시장 개척 영향으로 수주를 뒷받침할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신용기관(ECA)과 글로벌 IB가 해외 인프라금융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PF 지원 보험 실적 중 90%가 외국계 IB에 집중됐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제 건설 전문지 ‘ENR’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세계 30대 건설사 중 5개사가 우리 건설사로, 세계 6위권 수주실적을 자랑하는 반면 시중은행의 SOC PF실적은 세계 70~100위권에 불과하다.

금융회사들은 독자적으로 해외 SOC시장 진출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와 규제로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시중은행의 해외SOC PF대출 금리가 통상 글로벌은행 대비 0.5% 이상 높아 불리하다는 게 금융회사들의 지적이다. 외화 예금기반이 취약해 장기 외화자금 조달 비용상 열위에 있어서다.

해외 SOC금융 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프로젝트의 정밀 심사가 어려우며, 금융자문·주선 역할 수행도 곤란하다는 것도

취약 요인이다. 우리 금융회사의 SOC 발주 국가 현지 영업망, 사업주와의 사전 관계가 없어 프로젝트 접근 기회도 제한되고 있다.

AIB 활용 위한 '코리안 패키지' 9월 출범

장벽이 높은 글로벌 인프라금융시장에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의 힘으로 진입하기가 힘들자 정부는 민관합동 코파이낸싱(Co-financing)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발주하는 사업의 국내 기업 수주를 돕기 위한 협의체인 '코리안 패키지'가 오는 9월부터 가동된다. 코리안 패키지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인프라 기업·협회가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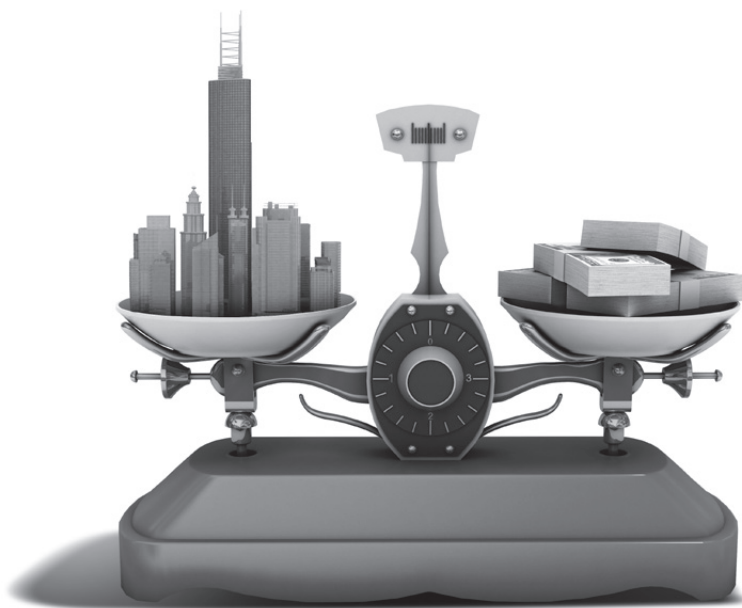
AIB 출범을 계기로 열릴 아시아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해외 수주 자금지원과 시장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은 AIB를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AIB가 골격을 갖추고 출범을 준비 중인 올해 하반기가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IB 관련 인프라 사업은 초기부터 자리를 잡아야 지속적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8월까지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건설·엔지니어링·플랜트·ICT·금융분야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9월에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어 쟁점을 조정한 이후 장관급 회의에서 '코리안 패키지'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0억달러 규모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

8월에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



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5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해외SOC펀드를 조성한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이 펀드 설립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 SOC사업에 이 펀드가 대출을, 연기금·보험사가 지분 투자를 각각 단행하는 방식이다. 펀드를 운영하면서 시중은행들은 해외SOC 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AIIB가 추진하는 해외 SOC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올해 20억 달러의 대출 펀드를 운영한 이후 소진 실적을 보가며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연기금·증권사 등으로 참여 기관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AIIB 출범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 중심의 아시아 SOC시장 참여를 위해 한국과 중국 금융사 및 건설사가 함께 참여하는 AIIB세미나를 11월 상하이에서 개최해 아시아 SOC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 중수익 대체투자자가 필요한 보험사의 해외SOC금융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규제의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해외 SOC금융 투자에 대한 실질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국내 SOC금융은 6% 수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하나, 해외 SOC금융은 일괄적으로 12%를 적용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IIB 출범과 유럽계 은행의 자산 축소(디레버리징)로 틈새시장 기회가 확대되는 해외SOC 금융을 공략해 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SOC금융시장 공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상업

은행들이 금리 경쟁력으로 일본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듯이 우리 기업들도 한국 금융회사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차문호 현대건설 상무는 “해외 프로젝트 금액이 대형화 하는 데 비해 수출입은행과 무보 등 정책금융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금융 경쟁력 부족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수은·산은 등 정책금융 기관, 국내 금융기관 해외 진출 도우미 박차

수은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우리 기업들의 부족한 자금 갭(Funding)을 메우면서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내 대표 ECA인 수은과 무보는 대외채무보증을 운영하며 민간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외 채무보증이란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 사업 대출에 대해 수은이 채무보증을 제공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수은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수은은 지난해 4월 투르크메니스탄 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을 비롯해 2012년 이후 총 11개 사업에 10억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수은은 또 민간 금융기관이 수은(10~15년)에 비해 조기(5~7년)에 우선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도록 지원해 장기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덜어주는 우선상환제도 운영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글로벌 비즈니스 역할을 강화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문 및 주선, 재무적 투자자(FI) 유치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SOC PF 분야의 선도은행 경험을 살려 해외 PF업무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